

- 본문 : 에베소서 1장 7~12절
- 제목 : “구속의 축복”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 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 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 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가 노출 되어있는 주변의 환경이나 자극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감각이 무뎠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욱 자극적인 것들을 찾으려 하면서 점차적으로 더욱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감정적인 욕구나 만족을 위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오늘날의 문화는 여러가지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덧 개인의 만족을 위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워졌고, 이제는 정말 잊지 않아야 할 본질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외적인 다른 문학이나 매체로 인하여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잊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복음의 경이로움과 고결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혹시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습니까? 혹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여 감정적, 이성적 신앙을 통해 본질을 대신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감격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찬양했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2.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 누리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존재는 과거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상태로 변화되었습니까? (엡1:7, 요8:34, 갈1:4, 갈3:13)
3.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리고 그에 걸맞는 찬양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히9:12, 찬257장 3절)
4. 우리가 구속의 축복을 이해하고 확신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엡1:8~9, 요15:15)

· 삶의 열매를 거두며

5. 우리는 “구속의 축복”과 “죄사함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영광의 찬송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2022년 새생명 축제를 맞아 우리가 먼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복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